



제목	The Imperial Harem: Women and Sovereignty in the Ottoman Empir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1993. 9. 2.
저자	Leslie P. Peirce
출판도시	Oxford
페이지수	400
ISBN 또는 ISSN	978-0195086775

내용 요약

16, 7세기 오스만 제국의 하렘은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권력이 대부분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축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자는 당대 왕실 여인들이 어떻게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권력에 대한 당대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이 책을 썼는데, 왕실 측근의 여인들과 무장한 반대편 여인들의 권력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았다.

왕실 네트워크라는 맥락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검토한 결과 저자는 당시 여성들의 권력이 말하자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정치 구조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결과물이었음을 밝힌다. 왕실 여인들이 주권적인 권력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그 권력을 사용하도록 훈련했고 필요할 경우 섭정의 형식으로 그 권력을 직접 행사했다. 나아가 하렘의 여인들은 왕실의 각종 기념행사와 기념비적인 제막식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예술가를 후원했기 때문에 당시 문화예술의 생산 주체이기도 했다.

저자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집과 삽화 목록, 1402년의 오스만 제국 지도, 술탄이만의 통치 시기인 1520~1566년 지도를 제공한다. 제1부에서는 '정치학의 재생산'이라는 주제 하에 14세기부터 17세기 중반의 왕실 여인들과 후궁들, 그리고 하렘의 시설 등을 다루었다. 제2부에서는 '여성들과 주도권'이라는 주제 아래 주권이 부여하는 특혜와 정치외교적인 활동, 그리고 정치권력 행사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결국 이 책의 저자는 하렘 여성들의 정치적인 권력이 섹슈얼리티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